

朝鮮 正祖代 奎章總目之編纂與其特徵

鄭萬祚

I. 緒 言

《奎章總目》이란 朝鮮 第22代 임금인 正祖가 1776년(正祖 卽位年)에 세운 奎章閣의 附屬建物인 書庫에 備置되어 있던 圖書의 目錄을 말한다.

奎章閣이 正祖 當代에 갖는 政治的·文化的 機構로서의 比重이 컸던 데다가 또 奎章閣 圖書가 우리 나라 歷史 研究를 위한 資料로서 갖는 價値가 높았던 관계로 奎章閣과 마찬가지로 이 《奎章總目》에 대한 關心 역시 일찍부터 주어졌다¹⁾. 그러나 關心이 일렀던데 비하여 研究 自體는 그리 活潑했던 것 같지 않다. 簡單한 解題나 紹介 정도에 그치는 한두 편의 論文이외에는 書誌學 쪽에서 다른 研究가 全部이다²⁾. 그나마

1 奎章閣에 관한 논문으로는 藤村 隣의 「李朝의 學人と 乾隆文化」(京城帝大 法文學會 第2附論纂 第1輯, 1929)가 가장 이르며, 《奎章總目》에 관해서는 末松保和의 「奎章閣と 奎章總目」(小田紀念朝鮮論集, 1934, 靑丘史草 第2에 再收錄)이 있다.

2 奎章總目에 대해서는 上記 末松의 論文외에도 다음과 같은 研究物이 있다.

白麟 : 奎章閣 藏書에 대한 研究 (延世大 圖書館, 1962)

李載(): 韓國書誌 目錄學史의 一研究 (省谷論叢7, 1976)

書誌學的 研究에서 그것의 特徵을 모두 드러내었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이 글 역시 《奎章總目》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研究成果를 綜合하는 위에서, 그것의 編纂背景과 그리고 中國 目錄書들과의 比較檢討를 함에 의해 그것이 갖는 圖書目錄書로서의 特徵을 抽出하고자 했을 뿐이며, 이를 통해 《奎章總目》에 대한 一般의 關心을 促求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II. 編纂背景

王位에 오르기 前부터 好文의 性稟을 지녀서 學問에 熱心이었고, 이미 20歲 안팎의 나이에 學者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學問 境地에 到達하였던 正祖 임금은 王位에 오른 直後 先王 英祖를 包含한 列朝의 御製·御筆의 奉安場所로서 奎章閣을 設置하고³⁾ 이를 中心으로 右文政治를 標榜하면서 徐命膺같은 當代의 代表的인 學者에게 그 運營을

愼鏞廈:奎章總目 解題(奎章閣4,서울대, 1981)

宋日基:「奎章總目」考(中央大 碩士論文, 1982)

愼鏞廈:奎章閣 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5, 서울대, 1982)

3 正祖實錄 卷2 卽位年 9月 癸巳, 奎章閣의 設置와 關聯해서는 上記 末松의 論文과 金龍德의 「奎章閣考」(中央大 論文集 第2輯, 1957), 李泰鎭의 奎章閣 小史(王朝의 遺産 pp109-147,1994)의 論文을 參考하였다.

말기되 優先 圖書의 蒐集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弘文館에서 保存하여 오던 書籍과 江華府行宮에 所藏되어 있던 圖書 및 地方의 書院이나 個人이 所藏하고 이는 稀貴本 등을 收束하고 다시 中國에 가는 使臣 一行에게 中國의 圖書를 輸入해 오도록 密命을 내리기도 하였다.⁴⁾ 특히 이 時期는 마침 中國에세도 清代의 康熙·乾隆의 文化全盛期를 맞아 5000餘卷에 이르는 古今圖書集成이 이미 編纂되었는가 하면 中國內의 圖書를 總集하는 四庫全書의 編纂이 한창 進行되고 있던 期間이었다.

世孫으로 있을 때부터 中國에서의 書籍 刊行에 깊은 關心을 갖고 訪書錄을 만들어 必要한 書籍을 購入해오던 正祖는⁵⁾ 임금이 된 後 經費가 多少 들더라도 이러한 巨帙의 圖書를 求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自身의 卽位를 알리러 가는 使臣에게 四庫全書를 사오라고 命令했던 것이다. 마침 四庫全書는 아직도 編纂이 끝나지 않은 데다 國力을 다 기우리다시피하여 筆寫해 놓은 圖書의 放賣를 許容할 雰圍氣가 아니어서 結局 購入에는 失敗하였지만 그대신 5020卷 502匣으로된 古今圖書集成만은 銀子 2150兩을 주고 輸入할 수 있었다.⁶⁾

이렇게 하여 蒐集된 圖書는 摛文院과 거기에 있는 東二樓

4 正祖實錄 卷11, 5年 6月 庚子, 奎章總目成 및 同 5月 戊子條의 召見承旨에서 直提學 沈念祖의 "聞沁留言 自內世傳冊 子多出外云 依先朝李叔蕃家推納之事 ()今收還似好 而鄭妻家 多有御筆冊 子云 發遣戶郎檢書官 卽爲搜入宜矣"라는 上言

5 이에 관해서는 李泰鎮, 上揭書 pp110-121, p131에 仔細히 說明되어 있다.

6 正祖實錄 卷3, 元年 3月 庚申 進賀兼謝恩正使李潑 副使徐浩修等狀啓

에 간수되든지⁷⁾ 또는 奎章閣의 附屬建物로서 正祖初부터 建立되었던 闕古觀·皆有窩·西序 등의 名稱을 가진 書庫에 華本(中國本)과 東本(朝鮮本)으로 나뉘어 保管되었으며 大概 正祖 5年頃에는 約 3萬餘卷을 헤아릴 程度⁸⁾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正祖는 1781年(正祖5) 原任奎章閣 提學인 徐命膺에게, 그 동안 蒐集되어 分類, 整理되어 왔던 闕古觀·皆有窩·西序등에 所藏된 圖書에 대한 目錄의 編纂을 命하였고 年老한 徐命膺을 代身하여 그 아들인 徐浩修·滢修의 主管下에 閣臣들의 共同努力으로 《奎章總目》이 編纂되었던 것이다⁹⁾.

7 從前까지는 圖書蒐集處로서 闕古觀 皆有窩 西序만 알려져 왔으나 아래의 實錄記事를 仔細히 檢討해보면 購求新書나 鐫刻善本은 東二樓에 保管되고 私刊之書은 一但 摛文院에 보내지게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內閣藏書 (○)闕宋太淸樓皇明文淵閣之遺制 或購求新書 或鐫刻善本 藏之東二樓 又有私刊之書 令外閣官諸道臣 隨卽印送(○)文院 內藏書籍 華本藏皆有窩 東本 藏西庫 命原任大提學徐命膺 撰奎章總目(正祖實錄 卷11, 5年 2月 丙辰)

8 註 9에 引用된 正祖實錄 卷11, 正祖 5年 6月 庚子條 記事 參照

9 正祖8년에 編纂된 《奎章閣志》의 書籍 第5, 藏書條에 보면 “洵(正祖 5年-筆者) 命原任大臣徐命膺撰奎章總目”이라하여 徐命膺에 命하여 《奎章總目》을 編纂케 한 것 (註7의 引用文에서도 正祖 5年 2月 丙辰에 같은 內容이 나온다)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正祖實錄의 5年 6月 庚子條(卷11)에는 “奎章總目成.....凡山經海志 牒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百千種 乃建闕古觀于昌慶宮內苑奎閣之西南 以峙華本 又建西序于闕古觀之北 以藏東本 總三萬餘卷瓊瓊至是 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闕古觀書目六卷 西序書目二卷 總名之曰 奎章總目” 라 하여 徐浩修로 되어 있다. 그런데 正祖 5년의 時點에서 볼 때 徐命膺은 66歲의 나이로 致仕한 몸이었으므로 直接 編纂에 從事하지

이때 編纂된 《奎章總目》은 實錄의 記事에 의하면 華本の 藏書目錄인 闕古觀書目 6卷과 東本の 目錄인 西序書目 2卷을 합친¹⁰⁾ 合都 8卷으로 된 奎章閣 所藏 圖書 全體에 대한 綜合的 目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 傳해지는 것은 皆有窩書庫에 所藏되었던 華本을 解題한 書目 4卷(3冊)뿐이다.¹¹⁾ 어떤 過程을 거쳐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이 적지 않으나¹²⁾ 大體的인 議論은, 實錄에서 보이는 上記 8卷의 《奎章總

는 않은 것 같으며 그 아이들인 浩修와 滢修 등이 事實上 이를 主管 하였고, 그러기에 6月 庚子條에는 徐浩修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奎章總目》의 卷首에 실린 凡例가 徐滢修의 文集인 《明臯全集》의 卷9에 「奎章總目敍例」로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凡例部分은 徐滢修에 의해 씌어졌다고 볼수있다.(金文植, 19世紀 前半 京畿學人の 經學思想과 經世論, 1985年 서울大 博士學位 論文, p73의 註37 參照)

10 註9의 正祖實錄 5年 6月 庚子條 記事 參照

11 現存하는 奎章總目은 서울大學校의 奎章閣圖書館 圖書番號<奎4461>로 있는데 目次는 卷1 皆有窩甲庫(經部), 卷2 皆有窩丙庫(史部), 卷3 皆有窩 丙庫(子部), 卷4 皆有窩 丁庫(集部)로 되어 書架表示와 四部分類를 협쳐 記錄하였다..

12 末松保和는 前掲論文 p230에서 闕古觀書目과 西序書目으로 된 奎章總目은 編成豫定에 不過하였고, 闕古觀에 增設되어진 皆有窩書庫가 華本을 주로 所藏하는 곳이었으므로 皆有窩의 書庫의 書目만 實際로 成稿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宋日基는 前掲論文 pp38-44 末松의 이 主張에 疑問을 表하였면서 奎章總目은 正祖 5年 2月 13日부터 6月 29日 사이와, 같은 해 가을에 각기 한 차례에 걸쳐 編纂되었는바, 闕古觀書目 6卷과 西序書目 2卷으로 된 것은 먼저 된 것으로 後日 언젠가 失傳 되었으며 現存하는 皆有窩書目은 뒤에 編纂된 것이라 하였다. 宋日基의

目》는當初의編纂計劃에不過하였던純祖初(卽位-5年)의正祖實錄編纂時錯覺으로記錄을넣은것으로보고,實際로는皆有窩書庫의華本만解題하여4卷의書目으로編纂하면서《奎章總目》으로이름하였으며,東本에대해서는後日解題없이分類目錄만作成하여「西序書目籤錄」등의名稱을붙였다는쪽으로모아지고있다.바로이것이現存하는《奎章總目》의原型이었다고할것이다.¹³⁾

《奎章總目》은結局圖書館機能을하는奎章閣의圖書目錄인셈이다.이렇게보면《奎章總目》이編纂된것은奎章閣의皆有窩(혹은閱古觀)書庫에있는書籍의管理를위해서였다고할수있다.

主張이一見妥當해보이기는하지만다만그根據를初草本奎章閣志의藏書條에보이는“辛丑(正祖5年)秋命原任直提學徐浩修撰奎章總目”의秋에만두고있어不安하다.거기에도奎章總目的編纂을傳해주는實錄이니奎章閣志,奎章總目,群書標記어디에도2차례에걸쳐奎章總目이이루어졌다는記錄이찾아지지않아說得力이그만큼줄어든다.따라서이問題는앞으로좀더檢討되어야할것이다.

- 13 愼鏞度, 前揭 奎章總目解題, 原本 그대로라고 하지 못하고 原形이라고만 한 것은 現存하는 奎章總目的 圖書收錄種類와 正祖 5年에 編纂되었다고 생각되는 群書標記에 실린 奎章總目的 圖書收錄種類에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안은 群書標記의 種數임

經部 78種(60), 史部 134種(120), 子部 182種(148), 集部 303種(279), 總計 697種(607) 이러한 差異는 群書標記의 奎章總目欄 末尾에 “繼此而購得者 將隨得隨錄也”라고 하였듯이 正祖 5年 奎章總目이 編纂된 다음에 購入된 書籍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追加로 記載하였으므로 原形은 維持하되 原本의 形態는 아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奎章總目》이 이루어지게 된契機는 될지언정 《奎章總目》을 만들 程度로 奎章閣에 많은 書籍가 모이게 된 理由, 나아가 왜 그런 奎章閣이 設置되었나 하는 理由에 대한 說明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奎章總目》이 編纂되게 된 背景에 대해서는 別途의 說明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흔히 敎化의 根本과 治亂의 根源을 모두 冊에서 求할 수 있다는 儒敎的 右文政治의 一般論¹⁴⁾이나 특히 임금인 正祖의 好文과 圖書 蒐集 熱意¹⁵⁾ 탓으로 돌려진다. 그러나 이런 說明은 皮相的인 理解에 不過하다. 보다 깊은 背景을 찾아 보려 한다면 奎章閣을 세웠던 正祖의 政治的 意圖와 關聯지워야 할 것이다.

自身の 生父를 죽인 政治 勢力의 威脅 속에서 成長하고 王位에 올랐던 正祖는 그런 만큼 自身の 政治支持勢力의 確保가 必要하였던 것이고, 自身の 手足이 되어 自身이 追求하는 政策을 遂行할 官僚集團이 必要했었다.¹⁶⁾ 37歲에서 40歲 사이의 年少 文臣을 뽑아 王의 一定한 意圖下에 敎育시키는 抄啓 文臣制度를 奎章閣을 통해 實行했던 것은 그 具體的인 例가 된다. 이들의 敎育에는 多樣한 書籍이 必要하였고 奎章閣의

14 敎化之本 具於書 治亂之原 鑑於書(奎章閣志 書籍 第5)

15 上雅尙經籍 自在春邸 購求遺編 拓尊賢閣之傍而儲之 取孔子繫易之辭 名其堂曰貞頤 及夫御極 規模寢廣(正祖實錄 卷11, 5年 6月 庚子)

16 李泰鎮, 前掲書 pp125-130 및 鄭玉子, 奎章閣 抄啓文臣研究(奎章閣 4, 1981) pp22-28 參照

書籍蒐集과 保管은 그래서 熱誠으로 遂行되었던 것이며, 《奎章總目》의 編纂도 그 一環이었다.¹⁷⁾

한편으로는 正祖가 王位에 오르던 時期는 淸나라에서 古今圖書集成, 四庫全書로 代表되는 大의인 編纂事業을 벌리면서 大統의 盛世를 對內外에 誇示하던 政策을 펴던 期間과 一致한다.¹⁸⁾ 이에 대해 正祖는 朝鮮의 學問 傳統이 朱子學 研究에 強點이 있는 것을 基盤으로 淸의 漢學整理에 맞서서 宋學의 核心인 朱子著述의 綜合本을 만들려고 試圖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奎章總目》의 刊行은 淸의 四庫全書 編纂에 對應한다는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¹⁹⁾ 18世紀 當時 朝鮮의 知識層들은 異民族의 支配를 받는 中國에 대해 中華의 正統이 朝鮮으로 왔다고 보아 朝鮮中華主義를 標榜하였고, 그런만큼 淸文化에 대한 文化的 優越感을 갖고 있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奎章總目》의 編纂을 四庫全書의 編纂에

17 正祖 5年 2月에 奎章閣의 職制를 大幅 擴張, 強化함과 함께 抄啓文臣 制를 처음으로 制度化하여 施行하면서 (正祖實錄 卷11, 5年 2月 庚申條의 下敎와 抄啓文臣講製節目), 同時에 奎章總目的 編纂을 下命한 것이 이를 反證한다.

18 이에 관해서는 藤村 鄰의 論文을 모은 淸朝文化東傳의 研究 (1975)에 仔細히 說明되어 있다.

19 金文植, 前掲論文 p末49, 그런데 末松保和는 正祖朝と 古今圖書集成의 傳輸(靑丘史草 二)에서 奎章總目이 그 體裁나 編纂方式에서 마치 四庫全書總目的 影響을 받은 것처럼 敘述(p218)하고 있는데 이는 四庫全書總目的 刻板이 1789年(正祖 13年)이고, 翻刻되어 世上에 널리 傳播된 것이 1795년(正祖 19) 이후여서 1781년(正祖 5)에 이루어진 奎章總目보다 時期的으로 훨씬 늦었다는 事實을 忘卻한 데서 온 잘못이었다.

對應하는 것은 把握²⁰한다고 해서 큰 無理는 없을 것이다.

III 目錄書的 特徵

概述한 바와 같이 《奎章總目》을 編纂할 처음에는 當時까지 蒐集된 3萬餘卷에 대하여 모두 分類하여 解題하려 한 것 같으나 現存하는 《奎章總目》에는 華本(中國本)만 있고 東本(朝鮮本)은 없다. 東本の 目錄을 보여 주는 것은 아래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西序書目籤錄이다. 이것은 正祖16년 西庫를 改築하고 나서 冊을 옮기면서 圖書의 配置와 管理를 위해 作成된 것으로 보이는데²¹) 4部類門에 의한 分類와 그에 따른 圖書目錄만 記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東本만 있지 않고 相當數의 華本이 들어가 있으며 大體로 華本을 먼저 쓰고 다음에 東本을 記錄하고 있어 西序가 東本만 配置하는 西庫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東本에 대한 解說은 鏤板考가 群書標記 등 다른 著述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²).

20 李泰鎮, 前掲書 p133

21 南權熙, 西序書目籤錄 解題(奎章閣 12, 서울대, 1989)

22 鏤板考는 全國 各地의 木板들의 所在狀況을 調査하여 四部法으로 分類하고 各各의 解說을 붙인 것인데 徐浩修·徐有矩 父子가 編纂을 擔當하였다. (金允植,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成均館大學圖書館學科 碩士論文, 1978), 그리고 群書標記는 正祖 當代에 御定이나 命撰으로 이루어진 著述에 대한 純粹한 解說集이며, 모두 147種의 圖書가 收錄되어 있다. (玄英娥, 群書標記에 관한 研究, 梨大 碩士論文, 1973)

그러면 《奎章總目》의 編纂方式으로서 우선 目錄書로서의 體裁부터 보기로 한다. 《奎章總目》의 凡例에는 古今目錄家의 體裁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서, 첫째 劉歆의 七略과 王儉의 七志, 鄭樵의 藝文志와 馬端臨의 文獻通考 經籍考 등은 古今의 書籍을 總網羅하여 收錄한 것(總記古今之圖書)이며, 둘째 晉의 義熙目錄, 隋의 開皇目錄, 唐의 集賢書目, 宋의 《崇文總目》 등은 한 時代에 蒐集된 圖書를 통틀어 收錄한 것(通紀一代之圖書)이고, 셋째 李淑의 邯鄲圖書志, 鍾音의 浙江遺書總目, 尤袤의 遂草堂書目,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 등은 한 地方 한 個人의 圖書를 收錄(但紀一方一家之圖書)한 것이라 하였다. 《奎章總目》이란 名稱이 여기서 보이는 唐의 集賢이나 宋의 崇文의 例에 좇아 閣號를 따서 지은 것임은 물론이다. 위에서 引用된 目錄書들은 적어도 《奎章總目》의 編纂者들이 直接 接觸했거나 알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奎章總目》의 體裁는 바로 《崇文總目》²³⁾의 例와 같이 通紀一代之圖書하는 類型에 屬했다고 하겠다.

다음 가장 重要的 圖書分類方式에 대해서는 亦是 凡例에서 魏의 荀 以來的 傳統에 따른 經史子集의 四部法을 取하며 部 밑에 類를 두고 다시 그 밑에 各已 다른 例(門目)를 두지만

23 崇文總目은 宋의 王堯臣 등이 勅命을 받아 景祐 元年(1034)에 昭文·史館·集賢·秘閣의 收藏圖書 30669卷을 分類·編次하여 66卷으로 만든 目錄書로서 每圖書條目마다 論說을 붙였는데 南宋때 論說 이 煩雜하다 하여 削除하였다가 明·清代에 部份의 敍·釋과 引證 등을 補完하였다. (四庫全書總目, 史部, 目錄類)

類門을 너무 仔細히 하면 圖書를 分類하기가 어지러워지고 너무 簡單히 하다 보면 類門의 概念과 範圍가 模糊(太細則眩於割裂 太簡則傷於模糊)해지기 때문에

故此書爲類凡三十四 而條門創義 損益前人 疑其似而合之者 寧失於細 不得不分 同其類而分之者 寧失於簡 不得不合 고하여 그 分類方式의 原則을 定한 위에서 34類로 設定하였 음을 밝혔다.

그러면 《奎章總目》의 分類와 餘他 다른 書目의 그것과의 差異는 어떠할까. 그것을 《奎章總目》에서 參考했다고한 《崇文總目》과 《文獻通考經籍考》²⁴⁾, 그리고 비슷한 時期에 中國에서 나온 《四庫全書總目》 및 위에서 말한 西序書目籤錄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 表와 같다.

우선 全體 類目에 있어서 《奎章總目》이 總 34類로 가장 적다. 《崇文總目》이나 《文獻通考經籍考》는 宋·元代 當時의 目錄學 水準이 높지 않아 整理가 덜 되어 類目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奎章總目》과 같은 時期에 나왔으며 中國 歷代의 目錄學의 總決算이라는 《四庫全書總目》은 물론이고 몇 年 늦게 亦是 奎章閣에서 編纂되었던 西序書目籤錄보다도 2種이나 적다. 이 點은 뒤에서 다시 한번 詳論되겠지만 西序書目籤錄이 《奎章總目》보다도 項目이 많은 것은 表에서 보

24 《文獻通考》는 元初의 人物이던 馬端臨(1228-1322)이 編纂한 總 348卷으로 된 類書의 一種인데 그중 卷第 174에서 249까지 總 66卷의 經籍考는 隋書經籍志, 宋史藝文志, 直齋書錄解題, 焦竑國史經籍志와 함께 目錄書로서 有名하다.

뜻이 收錄된 書籍 總類가 1072種 對 677種이었던 데서 由來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으로 《奎章總目》의 分類類目を 中心으로 다른 書目 의 그것과 서로 比較해 가며 보면 우선 經部의 경우, 다른 目錄에서 보이는 孝經의 設定이 없다는 點이다. 이는 미처 孝經 關係 冊 이 購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西序書目籤錄에 孝經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經部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現象은 餘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總經類가 設置되어 있는 點이다. 여기에는 十三經注疏나 四書五經大典처럼 經部의 한 項目에 넣기에는 어려울 程度로 여러 經傳이 함께 묶여 있는 경우의 處理를 위해 設定한 것이다. 《文獻通考經籍考》의 經解와 義注, 《四庫全書總目》의 五經總義, 西序書目籤錄의 群經이 여기에 該當되지만 그러한 分類보다는 總經類를 經部의 첫머리에 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 된다.

《奎章總目》과 他 書目的 類門對比表

	宗文總目	文獻通考經籍考	奎章總目	四庫全書總目	西序書目籤錄 27
					御製御筆51 塔譜塔牒22 御定 24 (97종)
經部	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易 詩 禮 春秋 論語 孟子 論語	總經 7 易 7 書 5 詩 5 春秋 7 禮 10 樂 2	易 書 詩 禮 春秋 五經總義 四書	易 12 書 5 詩 4 禮 18 春秋 8 論語 2 四書 28 群經 1 小學 9

	論語 小學(9類)	經解 樂 儀注 益法 識緯 小學(13類)	四書15 小學20(9類) (78卷)	樂 小學(類)	六書 9(10類) (95卷)
史部	正史年錄 實錄 雜史 偽職 儀刑 地理 氏族 歲時 傳記 目錄(13類)	正史年 起居注 起傳 雜史 偽職 儀刑 地理 氏族 歲時 傳記 目錄(16類)	正史27 編年16 別史48 掌故15 地理22 鈔史2 譜系1 總目3(8類) (134卷)	正史年 紀事本末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記 時令 地理 官職 政書 目錄 史評(15類)	正史5 年23 編注8 起注27 雜史40 傳記12 史學2 史掌故67 法條9 地理24 譜牒16(11類) (233卷)
子部	儒家 道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小兵法 說家 類書 藝術 醫書 卜筮 天文 占書 曆數 五行 道書 釋書(20類)	儒家 道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小兵法 說家 類書 藝術 醫書 卜筮 天文 占書 曆數 五行 道書 釋書 房中家 神釋 氏類 書 雜藝術(21類)	儒家47 天文1 曆象(象)25) 9 卜筮1 農家2 醫家9 兵家3 道釋家6 雜家3 說家13 藝玩23 類事(書)26) 32 叢書9(15類) (182卷)	儒家 兵法 農家 醫家 天文 藝術 算術 天文 數術 譜錄 雜書 類書 小說家 釋家 道家(14類)	儒家55 經濟9 天文8 曆象32 五行8 兵家37 農家24 醫家2 譯語11 藝玩28 道釋5 說家11 類事8(13類) (247卷)
集部	總集 別集 文史(3類)	賦詩 詩集 詞 歌 詞 章 總集(6類)	總集80 別集223(2類) (303卷)	楚辭 別集 總集 詩文評 詞曲(5類)	總集35 別集365(2類) (400卷)
	卷45類	卷56類	(697卷)卷44類	卷44類	(1072卷)卷36類

25)26)27)

史部는 總 8類로 되어 比較的 다른 書目보다 類目이 적다. 위의 《奎章總目》 凡例에서 보았던 類目の 細分과 統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部分이 바로 이 史部였다고 하겠다. 史部의 構成 關聯해서 編者는 그 凡例에서 譜系와 目錄으로 나눈 것은 文獻通考의 例를 따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文獻通考經籍考》가 無慮 16類로 細分하고 있음에 비해 《奎章總目》은 但只 8類에 그쳐 한가지로 《文獻通考經籍考》를 따랐다고 볼 수 없다. 대체로 말해 《奎章總目》은 起居注, 雜史, 僞史, 霸史를 別史의 類目に 그리고 故事, 職官, 刑法, 時令을 掌故의 項目에 하나로 묶어서 收錄하고 있다. 앞서 본 凡例에서 필요한 경우 繁瑣하다는 嫌疑가 있어도 나눌 것은 나누고, 너무 簡單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숨칠 것은 숨한다고 했으나 史部를 보면 나눈 것보다 숨친 것 많다고 하겠다.

여기서 하나 問題되는 것은 傳記類의 設定이 없다는 點이다. 歷史의 本領이 그 歷史를 움직여 나간 人物의 活動相을 記錄하는 데서부터 出發하는 데 있다면 그것을 記錄한 傳記는 바로 歷史의 基礎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歷史書이

25 《奎章閣志》, 書籍第五의 藏書 項目에는 '曆象'으로 되어 있다.

26 同上 類事로 되어 있음.

27 奎章閣에 所藏된 東本의 分類目錄인 《西序書目籤錄》은 南權熙, 〈西序書目籤錄 解題〉(奎章閣12)에 따르면 正祖 16年 3月頃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 모두 이 傳記가 相當部分을 차지한다. 正史體 史書가 一部分의 志와 表 以外에 大部分 傳記的 性格을 지닌 本記·列傳으로 되어 있는 事實이 이를 端的으로 말해 준다. 이렇게 重要한 傳記가 設定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얼른 理解할 수 없다. 傳記關係의 書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東林列傳이나 續表忠記와 같은 人物傳이 있지만 이들은 別史類에 入屬되어 있다. 傳記類 部分까지 別史에 속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한다.

다음으로 子部를 보기로 한다. 子部는 個人의 思想이나 生活에 關係되는 內容인 만큼 그 項目이 本來 多樣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崇文總目》이나 《文獻通考經籍考》에는 그 類目이 20類를 넘기도 한다. 史部에서 類目を 大幅 줄였던 《奎章總目》亦是 여기서는 15類를 設定하고 있다.

이 子部에 대해 編者는 ① 晏子, 墨子를 雜家 속에 넣었는데 七略을 따른 것이고 ② 董子(董仲舒), 荀子를 儒家에 넣은 것은 通志의 바름을 따른 것이며 ③ 天文曆籌를 兵·刑 앞에 둔 것은 여러 史書의 經籍志 등에서 거울 삼은 것이며 ④ 讖緯 五行을 실지 않은 것은 그것을 믿어야 할지 말지 疑心 가는 바가 있어 當分間 비워 놓고 後世人의 바른 措處를 기다린다는 뜻이고(闕文) ⑤ 道類·釋氏를 뒤로 돌린 것은 異端을 물리치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子部 項目에서도 《奎章總目》은 《崇文總目》이나 《文獻通考經籍考》의 類目を 大幅 縮小하고 있다. 卽 20類 以上되는 類目이 15類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보다 具體的으로 보면 法家·名家·墨

家·縱橫家가 모두 雜家 속으로 들어갔으며, 五行과 占書들은 위에서 말한 대로 闕文이고 神僊은 道家로, 雜藝術은 藝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統合은 《四庫全書總目》의 分類와 거의 一致하고 있어 《奎章總目》 編纂者의 높은 眼目을 엿보게 한다. 그런데 하나 特異한 것은 叢書를 別途로 設定한 것이다. 宋代에 생겨난 叢書는 明代를 거치면서 發展하고 清代에 크게 盛行했다는데²⁸⁾, 이 때 朝鮮에 많이 流入됨으로써 項目을 設定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²⁹⁾ 《四庫全書總目》에는 子部의 雜家類, 雜纂屬目에 넣고 있으나³⁰⁾ 이렇게 叢書類로 따로 設定한 것이 훨씬 合理的이다.

그리고 《四庫全書總目》과 對照할 때 藝玩이 特異한데 이것은 《四庫全書總目》의 藝術과 譜錄을 숨겨 놓은 것이었다. 《奎章總目》 史部에 있는 譜系와 《四庫全書總目》 子部의 譜錄은 相異한 것으로 前者는 萬姓統譜를 收錄한데서 보듯이 族譜를 意味(《四庫全書總目》에 萬姓統譜는 類書類에 들어가 있다)³¹⁾하나 後者는 宣和博古圖·文房四譜 등에서 보듯이³²⁾ 그림·달씨·茶 등에 관한 書籍을 收錄한 것이었다.

28 《中國叢書綜錄》 上海圖書館 前言

29 《奎章總目》의 子部 叢書類目에는 다음과 같은 9種의 叢書가 실려 있다. 說郛, 漢魏叢書, 唐宋叢書, 稗海, 眉公秘笈, 諸子彙函, 六子全書, 津逮祕書, 知不足齋叢書

30 《四庫全書總目》 卷 123, 子部 雜家類 雜纂屬에서는 意林, 類說, 說郛, 古今說海 등 11種의 叢書를 들고는 “案以上諸書 皆採摭衆說以成編者 以其源不一 故實列之雜家”라고 하여 雜家로 分類하게 된 理由를 밝히고 있다.

31 《四庫全書總目》 卷 136, 子部 類書類二.

끝으로 集部의 경우는 總集과 別集 2種만 두고 있는데 6類를 둔 《文獻通考經籍考》나 5類를 둔 《四庫全書總目》에 비해 훨씬 적다. 이것은 賦詩·詩集·歌詞·章奏·楚辭 등의 多樣한 名目을 모두 總集속에 包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奎章總目》의 總集類에는 無慮 80種의 많은 書籍이 들어가 있다. 그속에 楚辭, 文選, 歷代 名臣奏議, 唐宋八大家文, 古詩紀 등의 위와 같은 여러 類門에 속하는 書籍들이 들어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以上에서 보듯이 《奎章總目》의 圖書分類方式은 앞서 있던 《崇文總目》이나 《文獻通考經籍考》의 그것과 相當히 다르다. 編纂者가 凡例에서 類例가 너무 仔細하면 冊을 分類하는데 너무 어지럽고 類例를 너무 簡單히 하면 分類基準이 模糊해 질 危險이 있다고 하여 前人의 分類한 바를 參照 整理하되 省略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나누어야 할 것은 차라리 너무 나누었다는 嫌疑를 받을지언정 나누지 않을 수 없었고 같은 性格의 것들로서 나누어진 것은 너무 簡單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는 限이 있더라도 省略할 수 없었다고 밝힌 그대로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폈듯이 《奎章總目》은 類門을 늘린 것은 經部의 總經과 史部의 譜系 및 子部의 叢書 3類뿐이고, 諡法·讖緯와 起居注·傳記·僞史·霸史·史評·時令·儀注, 그리고 法家·名家·墨家·縱橫家·五行·房中·神僊 및 文史·賦詩·詩集·歌詞·章奏 등 無慮 20類 以上을 或은 別史·掌故類에 또는 雜家·類事와 總集類에 包括하여

屬하게 함으로써 줄이고 있다. 大體로 보아 《奎章總目》의 編纂者는 그때까지 나온 目錄類의 圖書分類가 너무 仔細하게 나누어져 있어 煩雜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고 따라서 分類의 본뜻을 模糊하게 하지 않는 한 같은 性格을 지닌 것끼리는 서로 묶어서 습하는 方向을 取하여 類例를 크게 줄인 것이 아닌가 한다. 비슷한 時期에 나온 《四庫全書總目》이 44類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以前까지의 煩瑣한 類目에 대한 整理의 必要性은 中國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奎章總目》의 類目整理의 妥當性은 認定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四庫全書總目》의 類目分類 整理와 比較해서는 어떠할까? 《四庫全書總目》의 編纂은 當代 中國의 代表的 碩學들 數百名이 動員되어 長長 10餘年에 걸쳐 書籍을 整理·分類한 것이니만큼 《奎章總目》과 比較가 안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類目分類에 있어서만은 결코 그 水準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奎章總目》에 굳이 흠을 잡는다면 孝經의 項目과 傳記의 項目設定이 없다는 點이겠으나 그것은 總經類와 別史 項目으로서 補完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四庫全書總目》에서 史部의 詔令奏議·職官·政書의 項目과 子部의 類書項目이 서로 비슷한 性格으로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른 部門과 類目으로 따로 設定되어 있어 찾아보기 不便하고 그 區分의 基準 自體가 模糊하며, 別史·雜史·雜家·小說家사이의 區分 亦是 分明치 않아 史書가 여기저기 흩어져 屬해 있는 境遇를 種種찾게 되는 問題

點이 있다. 그리고 雜家의 境遇는 그 受容幅이 너무 넓어 그 속에 雜學·雜考·雜說·雜品·雜纂·雜編의 6가지 屬目을 두었는데 그 區分이 分明치 않으며 小說家類 안의 屬目인 雜事·異聞과도 서로 錯綜되어 같은 性格의 書籍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屬해 있어 混亂을 줄 뿐 아니라, 說郭와 같은 叢書까지 雜家內의 雜纂 속에 넣고 있어 分類上의 심한 矛盾을 드러낸다. 《四庫全書總目》의 이러한 問題點은 《奎章總目》에서 말한 “太細則眩於割裂” 하다는데 該當하는 것으로 너무 仔細히 나누려다 오히려 混亂을 가져오게 한데서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奎章總目》의 34類로 나눈 分類方式이 반드시 《四庫全書總目》보다 優越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보다 못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奎章總目》의 編纂者가 이러한 34類의 分類를 놓고

從此購刊之書 雖不知爲幾千萬卷 而其宏綱大目 皆卽此乎哉 不必如唐之訪書錄 宋之求書錄 隨得隨志 紛紜無統也³³⁾

이라고 自信感을 吐露한 것이 虛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비록 奎章閣에서 所藏하는 書籍을 分類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書籍을 整理하기 위해 만든 《奎章總目》일망정 그것의 分類體系는 그 編纂者가 自信했듯이 《四庫全書總目》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水準의 것이었고 이는 바로 當時 朝鮮學界의 目學錄을 包含한 學問水準이 相當한 程度에 到達하고 있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明이 滅亡

33 奎章總目 卷首 凡例

한 後 小中華로 自處하며, 異民族인 滿洲族이 支配하는 淸보다도 文化的 優越性을 내세우던 朝鮮時代 士大夫들의 矜持가 한갓 拭된 自負心이 아니라, 朱子學에 대한 綜合的 體系化를 試圖하던 것과 더불어, 相當한 內容을 가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奎章總目》은 單純한 圖書分類의 目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同時에 거기에 收錄된 圖書에 대한 解題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점은 《奎章總目》이 뒤에 作成된 《西序書目籤錄》처럼 圖書管理와 保存을 위해 作成되었을 뿐만 아니라 圖書의 體系的인 蒐集과 分類整理라는 學問的인 性格을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朝鮮의 目錄學이 發達할 수 있었고, 또 正祖年間 奎章閣에서의 모두 147種에 달하는 書籍編纂³⁴⁾은 이를 基礎로 하여 作成될 수 있었다.

그러면 《奎章總目》의 書籍解題方式은 어떠했을까? 凡例에 보면 이에 대한 說明이 나오고 있다³⁵⁾. 卽, 書名을 먼저 記錄하고 그 아래 撰者의 이름 및 著述의 義例를, 或은 序跋을 部分的으로 拔萃하여 그 書籍內容의 大綱을 밝히고 或은 그 冊에 대한 他人의 論評을 引用하여 그 編輯의 잘잘못을 밝히며, 그 冊의 流行과 消滅됨을 살피서 沿革을 考證하는 參考資料가 되게 하되, 別集에 이르러서는 그 著者의 人品의 높고 낮음과 文章에 대한 評價까지 다 함께 찾아 收錄하려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冊을 한 번 펼치면 모든 것을 훤히 알

34 群書標記에 收錄된 書籍을 해아린 것임.

35 註 33과 同

게 했다고 自矜心을 나타내었다. 다만 그 冊이 조금이라도 未審적은 形跡이 있는 것일 境遇는 但只 作者의 벼슬과 卷帙만을 記錄해 두고 뒷 사람이 널리 살펴 補完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冊의 分量을 나타내는데 옛부터 編·冊·卷·軸·葉·本·縛 등의 用語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圖書 1種을 '部', 1冊을 '本', 1編을 '卷'이라 規定하여 使用했음을 밝혔다.

《奎章總目》에 실린 各 圖書의 解題에 위와 같은 原則이 適用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여기서는 그것을 檢討한 結果를 일일이 論證할 餘裕가 없다. 다만 위의 凡例에 밝힌 解題原則과 箇箇의 圖書解題를 大綱 檢討한 것을 가지고 《四庫全書總目》의 그것과 比較해 본다면, 《四庫全書總目》의 그것이 作者에 대한 紹介나 該當 書籍에 대한 評價, 그리고 該當圖書에 대한 後世사람들의 增刪·篇帙分合 등을 詳細히 다루고 있음에 比하여, 《奎章總目》의 圖書解題는 作者名을 적고 內容을 한두 줄로 簡單히 要約 紹介하는 外에 目錄家들의 該當圖書에 대한 評隲을 引用하는 形態로 되어 大部分이 적은 量으로 簡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例컨대 史部 總目類의 《四庫全書簡明目錄》에 대한 解題에서 보듯이 臣謹案이라는 머리 記事 아래 該當圖書에 대한 編纂者의 見解와 評價를 相當히 길게 提示하고 있는 境遇도 적지 않다. 이런 部分은 《奎章總目》編纂者의 眼目과 學問的 水準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四庫全書總目》의 그것과 對比시켜 볼 수 있는 興味로운 分野인만큼 앞으로의 研究가 期待된다.

그러면 끝으로 《奎章總目》 編纂者가 多分히 競爭的인 對象으로 意識하였고, 또 《奎章總目》을 만들게 하는 直接的 契機를 提供했던 《四庫全書總目》의 編纂形式에 대해 어떻게 評價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正祖初에 《四庫全書》를 購入하려다 失敗하고 그 代身 《古今圖書集成》을 1帙 들여오게 되었던 데서 보듯이 正祖 임금이나 奎章閣의 閣臣들이 200冊에 이르는 巨帙인 《四庫全書總目》(提要)을 接해 보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實際로도 《四庫全書總目》의 初刊은 1789年(正祖13)이었으나 그것이 飜刻되어 世上에 널리 퍼진 것은 1795年(乾隆60,正祖19)以後라고 하느니만큼³⁶⁾ 《四庫全書總目》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하여도 《奎章總目》編纂 以後일 것이다³⁷⁾. 따라서

36 中華書局, 1965年刊, 《四庫全書總目》의 冒頭에 있는 「出版說明」 參照

37 지금까지 正祖 7年에 《四庫全書總目》이 《四庫全書》와 함께 우리 論叢7, 1976, p595)은 朝鮮 使臣이 《四庫全書》가 北京에서 瀋陽으로 옮겨질 때 이를 구경했다고 보고한 實錄의 記事(正祖實錄 卷15, 7年 3月 乙卯)를 誤讀한 데서 온 잘못이었다. 단 正祖는 四庫全書의 編纂에 관해 계속 큰 關心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燕京에 派遣되었던 使臣들은 機會當을 때마다 編纂事業의 進陟狀況을 正祖에게 報告했으므로 (正祖實錄 卷 19, 9年 4月 戊戌의 謝恩使書狀官 李鼎運 別單, 同書34卷, 16年 3月 壬辰 書狀官 沈能翼 別單 등) 王을 爲始한 朝廷官僚들이 四庫全書에 대해 不完全하기는 하더라도 어느 程度의 知識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徐有矩의 文集인 《楓石全集》의 知非集 卷9, 雜著 속의 題圖書待訪錄에 보면 “囊 寓三湖 偶從鄰人 借見四庫全書總目 愛其品裁精該 每遇藏書家 所不可闕者 隨手抄錄”이라 記錄되어 있어 三湖地域에서

《奎章總目》編纂者들이 《四庫全書總目》의名稱은 알았겠지만 內容까지 閱覽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四庫全書簡明目錄》은 《奎章總目》의 史部 總目類에 실려 있다. 《四庫全書簡明目錄》의 初刊이 1784年(乾隆49, 正祖8)으로 《四庫全書總目》의 翻刻보다는 10餘年이 빠르며 또 그것에 비해 1/10밖에 안되는 20卷으로 되어 있어³⁸⁾ 比較的 쉽게, 또 이른 時期에 朝鮮으로 輸入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찌하였던 《奎章總目》의 編纂者들은 이 《四庫全書簡明目錄》을 통해 未洽하나마 《四庫全書總目》에 接近할 수 있었고 이를 通해 그것의 分類方式이나 解題內容을 把握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奎章總目》의 史部 總目欄에 이 《四庫全書簡明目錄》을 收錄하고 이를 解題하면서 다음과 같이 評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四庫全書總目》의 編纂과 分類方式에 대해서는 精核 簡當하고 往往中綫한다고 하여 同意하였으나, 圖書의 收錄과 특히 解題에 있어서 큰 不滿을 表하고 非難을 퍼부었다. 그들의 基本的인 不滿은 紀昀을 包含한 《四庫全書總目》의 編纂

《四庫全書總目》을 빌려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徐有矩가 三湖에 寓居했을 때가 언제인지 당장 밝히기가 어려워 時期를 분명히 할 수는 없으나, 京華士族 집안 出身이던 그가 地方에 가서 살만큼 不遇하였던 時期라면 그 집안이 老論 僻派로부터 政治的 彈壓을 받던 純祖 以後의 것임은 쉽사리 斟酌할 수 있다. 純祖 以後라면 《四庫全書總目》이 刊行된 지 十餘年이 지난 時期가 됨으로 이 때 國內에도 《四庫全書總目》의 搬入이 可能했다고 할 것이나 正祖 5年의 《奎章總目》編纂과는 相關이 없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38 上海古籍出版社 1965年版 《四庫全書簡明目錄》의 ‘出版說明’ 部份

者들이 考證學에 바탕한 漢學을 앞세워 講學과 義理를 주로 하는 宋學을 批判하고 程子·朱子등의 大賢을 攻擊했다는 데 있었다³⁹). 漢學·宋學의 區分은 18世紀中葉 '吳派'를 創始한 惠棟이 처음 使用했는데 朱子學을 中心으로 하는 宋學에 對抗한다는 意味에서 考證學을 漢學으로 表現하였고⁴⁰), 以後 紀昀이 《四庫全書總目》에서, 阮元이 《皇清經解》에서, 그리고 王先謙이 《續皇清經解》에서 각기 漢學的 立場에서 宋學을 批判했으며 또 江藩은 이 區分에 따라 《漢學師承記》와 《宋學淵源記》를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18世紀後半 淸나라의 學界는 漢·宋學 사이의 葛藤과 論爭이 盛하였으며 朝鮮에서도 그 影響을 받아 주로 北學派들을 中心으로 考證學의 流入에 의해 漢學·宋學의 論爭이 一部 일어났다. 그러나 朝鮮의 境遇 當時의 學界와 政界를 主導하던 勢力인 老論이 朱子學 一邊倒로 다른 學問을 容納하지 않는 風潮인 데다가 國王이던 正祖마저 王權強化의 次元에서 朱子學의 理念을 援用하고 있었던 關係로 漢學的 要素는 크게 發展할 수 없었다⁴¹).

39 然其持擇予奪之意 則有大不可曉者 蓋以考古家爲漢學 講學家爲宋學 而評臧之際 右漢左宋 於派洛諸賢 則陽尊陰抑 屢示不滿於朱門 諸子以下 則昌言攻之 不遺餘力 (《奎章總目》 史部, 總目類, 四庫全書簡明目錄)

40 曹秉漢 淸代의 思想-經世學과 考證學(《講座中國史》IV, pp266-267) 및 金文植, 前揭論文 p22

41 正祖23年 回還進賀史로 北京을 다녀온 書狀官 韓致應이 그 別單에서 “學術則習尙日渝 減裂益甚 其言則共尊程朱 而實未嘗窺見門牆 雖稱稍有識者 並與記錄義例 而不辨出處者有之 至於陸王之學 亦未聞傳其諸餘云” 이라고 中國의 學術之風을 批判한 것도 이 같은 立場에서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紀昀 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非難하면서도 徐澧修와 같은

그렇다고 하나 이미 指導理念으로서 衰退의 機微를 露骨化하는 朱子學만으로서 變化하는 現實에 對處할 수 없었던 當時의 實情은, 새로이 일어나는 漢學風을 外面할 수만은 없게 하였고, 여기서 正祖 自身 義理學으로서의 性理學理念은 지키되 考據學으로서 새로운 方法인 考證學은 受容한다는 漢宋折衷論的 立場을 取하게 되었다⁴²). 이에 따라 正祖의 特別配慮로 營運되던 奎章閣에도 이러한 學術方向이 取해졌으나 宋學의 優勢는 變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러한 雰圍氣가 바로 《四庫全書總目》의 解題方向에 대한 批判으로 表明되었던 것이다.

以外에도 《四庫全書總目》에 대한 批判은 考證의 誤謬에 대한 指摘과 함께, 淸나라 皇室의 脾胃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顧炎武나 魏禧·邵長蘅 같은 明에 대해 節義를 지킨 遺民들의 文集을 排除한 것에 加해졌으며, “噫 蒐羅千百年之載籍 以成不刊之制作 乃欲以一時之私諱 一人之偏見 參錯於其間 難矣”라고 끝을 맺었다.

이는 北京에서 서로 만나, 往復質問한 事實을 報告 하면서 그가 書誌 目錄學에 있어서는 當世의 名家라고 높이 評價하였다. (正祖實錄 卷52, 23年 11月 辛未 回還進賀私趙尙鎮 副使徐滢修 進見別單 朝臣中 一辭公論 剛方正直 推劉鏞 風流儒雅推紀昀 今行購求時 當世所稱藏書名儒 多與之 往復質問 則自內閣書下書目 間或不辯其何等義例 何人編于 而獨昀一人 取諸腹笥 年經月緯 始終源流 洞如燭照 所著古文本之以經術 繩之以檢押 純正優餘 無愧爲當世名家

42 이에 대해서는 金文植의 前掲 「19世紀 前半 京畿學人の 經學思想과 經世論」에서 正祖와 成海應, 洪奭周, 丁若鏞을 中心으로 仔細히 다루고 있어 좋은 參考가 된다..

IV 結 語

以上에서 正祖初에 이루어진 《奎章總目》의 編纂背景과 그리고 藏書目錄으로서의 그것이 지니는 몇 가지 特徵을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奎章總目》의 編纂이 單純히 奎章閣 附設 書庫에 蒐集·所藏되어 있던 圖書의 解題, 整理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正祖의 政治基盤 確保를 위한 人材養成策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淸의 《四庫全書總目》 編纂에 對應하여 小中華로서의 自矜心을 지킨다는 文化的 自尊意識위에서 推進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編纂된 《奎章總目》은 처음 意圖와는 달리 中國本의 分類解題와 東國本의 部分的인 書目 作成으로 不完全하게 마무리 되었지만, 그러나 그 分類方式을 樹立함에 있어서 中國의 著名한 目錄家들을 두루 涉獵하고 參考한 위에서 經部9類 史部8類 子部15類 集部2類로 된 總 34類의 獨自的인 類門을 設定함으로써 中國目錄學의 集大成이라는 같은 時代에 만들어진 《四庫全書總目》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類目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을 凌駕한다고 생각되는 水準높은 分類體系를 樹立하였고, 收錄圖書에 대한 解題에 있어서도 宋學에 대해 批判的이었던 淸代의 漢學 考證學에 對抗하여 朱子學 觀點에서 各 圖書에 대해 內容分析과 評價를 내리는 特徵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朱子學的 側面에서의 解題는 性理學的 支配理念의 再確立을 통해 王權을 強化하고 動搖하는 社會體制에 效果의으로 對應하려 한 임금 正祖의 政治的 意圖

를 充實히 反映한 것이기도 하였다.

要컨대 《奎章總目》에는 朱子學的 政治論 위에서 王權을 強化하고 士大夫勢力과의 協助위에서 漸進的이나마 보다 進展된 方向으로 社會를 이끌어 가려 했던, 正祖와 그 支持勢力인 奎章閣 諸臣들의 理想과 具體的인 實踐方案이 凝縮되어 담겨 있었다고 할 것이다.

漢文提要

奎章總目者 朝鮮朝第二十二代王正祖(在位1776-1800)時所建奎章閣之藏書目錄也 卽位直後 正祖以爲不可無列朝御制及御定物奉安處 乃命設奎章閣於闕內後苑 略倣宋代龍圖閣 又欲以此閣爲士大夫學士之讀書處 附設書庫 名曰閣古觀 曰皆有窩(置華本) 曰西序(置朝鮮本) 而廣蒐天下圖書 或搜於國內名家之藏書處 或購求於中原之書肆 如此求得所藏之書 不過四五年內 其數已達於三萬餘卷 乃其五年(1781)使閣臣徐命膺等纂一書目錄書 而命膺與其子浩修·澄修及諸閣臣合力編之名曰奎章總目 然此書並不現傳 但推定正祖末年傾轉寫且補完的皆有窩所藏華本 目錄唯存 今日所稱奎章總目者 正是此皆有窩書目也

現存奎章總目並載錄六百九十七種 二萬一百四十八冊 (一冊或計數卷 或至十餘卷)之解題 以此比較與崇文總目·文獻通考經籍考·四庫全書總目等諸目錄書 其內容與特徵如下

一.採書體裁

此書所錄 卽皆奎章閣蒐採藏之書 故古今日錄家的總紀古今之圖書·通紀一代之圖書·但紀一方一家之圖書等採書三體裁中此書屬紀通一代之圖書體裁 如唐集賢書目宋崇文總目類

二.圖書分類方式

此書 亦從四部分類 而嫌歷代目錄家分類之繁瑣 大幅省略其目錄 經部設總經·易·書·詩·春秋·禮·樂·四書·小學等九類 史部只設正史·編年·別史·掌故·地理·鈔史·譜系·總目等八類 子部設儒家·天文·歷象·卜筮·農家·醫書·兵家·刑法·道家·釋家·雜歌·說家·藝玩·類書·叢書等十五類 集部但設總集·別集等二類 總而言之 四部三十四類目也 以此於崇文總目之四十五類 文獻通考經籍考之五十六類 可知其省略之大綱也 且較與同時的編纂四庫全書總目之四十四類目亦可見其簡明者也

三.圖書題解的特徵

此書之解題於諸圖書 皆從歷代目錄家方式 然而在於援引諸家之評隲處 及謂臣謹案的纂者之論評處 略見其獨特之見解 其主意本 在程朱的宋學 故不滿於四庫全書總目纂者紀 及清朝學人之反程朱學揚漢學的傾向 痛辨剖析其不然者 此處分明認得朝鮮學人之宗主性理學 與清代學人爲主物名考據學之差異

以上拙稿之提要 更以一言而蔽之 則奎章總目者 乃示顯於宋學士臺的十八世紀末朝鮮學人之圖書分類水準 及簡明分類爲主 此與中國目錄家之類目多端.